

명문 비고등학교의 야매 교칙

평소에 존재감은 별로 없지만 학칙은 사실 중요하다. 모든 국가기관이 법을 근거로 운영되는 것처럼, 학교의 운영과 관리가 대부분 학칙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학생들의 생활 규칙이나 징계와 같은 부분이 모두 학칙을 근거로 정해지기 때문에, 학칙이 어떨지에 따라서 학교생활은 확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학칙은 학생인권조례, 초중등교육법, 헌법,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상위법에서 정해놓은 범위 안에서 만들어져야 하고,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 모두의 의견을 충분히 모아져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최근 노원구의 비고등학교에서 적용되기 시작한 새로운 교칙은 이런 조건을 전혀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비고등학교 교장인 장 모 씨가 처음 교장으로 부임한 날은 작년 9월 1일이다. 장 모 씨는 그날, 3학년울 제외한 전교생을 1교시 수업 대신 본인의 취임식에 참가시켰다. 이 취임식에서 장 모 씨는 "명문 비고를 실현 하겠다"라며 자신의 포부를 밝혔다. 그 뒤에도 장 모 씨는 명문 비고를 만들기 위해서 각 학급을 돌며 자신의 이상을 내보냈다. 그리고 얼마 뒤, 비고등학교의 학칙은 장 모 씨의 이상에 맞게 개정되었다.

그러나 새 학칙은 개정하는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 최악의 자체적인 조사에 따르면,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기간은 사흘(2월 4일-2월 7일)밖에 되지 않았고 개정안에 관한 내용 안내가 홈페이지에 올라온 것은 그 도중(2월 5일)이었다. 또한 학생들이 대

정될 학칙에 대한 의견을 묻는 가정통신문을 받은 것은 의견 수렴 기간이 끝난 뒤(2월 10일 전후)였다. 게다가 교사들은 그 가정통신문이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안내했다고 한다. 애초에 학생들은 안중에도 없었던 것이다.

개정안의 내용에도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였다. 대부분의 항목에서 학생을 징계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졌고, 징계 강도도 더 강해졌다. 특히 장 모 씨와 비고등학교에서 강조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핸드폰을 학교에 가져올 수 없다'와 '학교에서 외투를 입을 수 없다'이다. 두 경우 모두 학교에서 핸드폰이나 외투를 압수한다. 특히 핸드폰의 경우, 처음 걸릴 경우 벌금 5만원 함께 일주일 간 핸드폰을 압수한다. 그 뒤로는 걸릴 때 마다 벌금은 5만원씩, 압수 기간은 일주일씩 늘어난다고 한다(3회까지). 이런 상위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학생의 권리(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징계를 남용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데라리문 핸드폰을 3번 걸리면 총 벌금 30만원도,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고 학부모도 학교에 불려가며 기록이 남고 각종 수상자 추천과 대회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게다가 애초에 이런 규제는 학칙으로 규정된 뒤 시행된 것이 아니다. 장 모 씨가 본인의 '이상'을 담은 지침(사신)을 시행한 것은 이듬 해 말 전(작년 11월)의 일이었다. 그 이후로 비고등학교 학생들은 지금까지 핸드폰을 학교에 가져가지 못하고 추위에도 외투를 입지 못하는 등 학교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겪고

짖고, 뜯고, 버리고, (별점)때리고~

- 당신의 대자보는 안녕하십니까? (의사표현의 자유)

근래에 전국 곳곳에서 '대념돌 하십니까 대자보?'가 이슈가 되었다. 그러다 학교 학생인 주현우 씨를 지적하는 대자보, 나이, 직업 등에 관계없이 현재 정세에 대한 것에서부터 개인적인 것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이 붙었다. 요즘 이런 상황 속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대자보를 붙이는 것을 탄압하는 일이다. 특히 중, 고등학교에서는 그 탄압의 정도가 더욱 심했다. 노원 지역 내에서도 용화여고와 등학교, 영신간호비즈니스고등학교, 청원여고등등학교 등에 대자보가 붙었다. 하지만 대자보는 붙이지마자 때려졌고, 학교에서는 대자보를 붙인 학생에게 벌점을 주었다. 심지어 해성고등학교에서는 교장이 경찰에 신고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대자보, 대자보 잘못된 것일까?
학생들의 대자보를 떼고, 뜯는 사람들은 그 이유를 대자보를 붙이는 일이 교칙에 어긋나기 때문이라고 한다. 실제로 그렇까? 노원구에 있는 한 고등학교의 교칙을 살펴보았지만, 어디에도 그에 관련된 교칙은 없었다.

그런데도 학교에서는 "불은 문서를 은근, 탐종, 제차, 게시 또는 유포한 학생'과 같은 징계 규정 중 하나로 트집을 잡고 있었다. 하지만 대자보가 과연 불은 문서인가? 대체 대자보가 불은인지 아닌지를 누가 판단한다 말인가? 이러한 교칙의 대부분은 그 문서가 실제로 불은한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다. 또한 선생들의 손으로만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학생이 보느냐에 따라 대자보에 대한 판단이 크게 좌우될 수 있다. 또한 징계의 강도만만 판단되는 교칙, 그리고 그에 따른 개연. 그 누가 과연 이런 규칙을 정당한다고 생각하고 따를까?

의사표현의 자유, 왜 청소년만 안 돼?
'정치와 청소년' 언뜻 보면 웬지 상관이 없을 것 같지만, 실제로도 청소년이 정치적인 내용의 말을 꺼내면 바로 돌아오는 어른들의 답이 무엇이었다. 대부분 이런 식이었을 것이다. "어른들이 벌써부터..." 조금 더 나아가서 집이나 시위 같은 곳에 참가했다고 생각해보자. 그렇다면 이젠 '너 누가 시켜서 하는 거지?'라는 말까지 들게 된다. 그나마 괜찮은 말이 딱 이 정도까지다. "어린 나이에 기록해네." '부모님 대자서 온 거니?'

왜 이런 반응들이 나오는 것일까? 이런 말들에 대부분 청소년은 '주제적으로 행동하지 못 한다.', '미성숙하다'는 생각이 깔려있다. 그래서 청소년은 정치에 관심을 가지면 안 되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정치적인 말을 하면 이상한 눈초리로 바라본다.

이러한 생각들이 학교로 녹아들어가게 되면 대자보 사건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다. 대자보를 붙인 학생에게 '너는 정치적으로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말 보다는 '청소년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잘못 되었어.', '너 누가 시켜서 한 거지?'라는 말을 하는 것처럼.

정치적 권리, 누구나 가지는 당연한 권리.

하지만 청소년이 그렇게 주제성이 없고 미성숙할까? 아니다. 청소년은 생각만큼 그렇게 미성숙하지도 주제성이 없는 것도 아니다. 모두 자신들만의 고유한 생각과 가치관이 있다. 그러나 당연히 자신의 가치관에 반하는 일에 대해서는 화도 내고 반항도 하는 것이다.

다만 대체로 많은 청소년들이 어리고, 정치에 무관심해 보이는 것은 주변에서 그렇기를 강요하기 때문이 아닐까? '너희들은 아직 그런 거 몰라도 돼. 공부

기본생활 습관을 확립하고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여 명문 비고등학교의 위상을 되찾고자 다음과 같은 생활지도 지침을 시행하고 있다.

- 휴대전화는 학교에 가져올 수 없습니다. (학원 시 벌점 5점 이상 부여와 1주일 이상 보관)
- 교내에선 후드티, 첩피 등 교복 이외의 복장을 착용할 수 없습니다. (학원 시 벌점 1점 부여와 당일 보관)
- 실내에선 끈 없는 백색 실내화만 착용합니다. (학원 시 벌점 1점 부여와 당일 보관)
- 남학생은 정발발을 신지 않고, 여학생은 화장과 지나치게 짧은 치마 착용을 할 수 없습니다. (학원 시 벌점 1점 이상 부여)

있다. 장 모 씨가 정해놓은 지침은 아무런 명분도 없었지만 아무도 이런 상황을 바로잡을 수 없었다.

학교의 모습은 여러 가지가 있다. 대학을 많이 보거나, 취업을 많이 시키고, 상류층을 많이 배출하는 것에만 초점을 때는 학교가 있는 반면, 비고등학교가 교육목표로 내세우고 있는 '정신적 품성과 창조적 지성을 갖춘 민주시민 육성'을 제대로 실현시키려고 노력하는 학교도 있다. 교장의 권한을 남용해서 규제를 입맛에 맞게 강화하고 뒤늦게 줄속으로 학칙으로 통각시키려는 학교가 있는 반면,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존중받을 수 있는 학칙을 만들고자 하는 학교가 있다. 장 모 씨가 생각하는 '명문'학교는 어떤 모습일까? 과연 장 모 씨의 노력은 비고등학교를 진정한 '명문'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과연 이 신문은 비고등학교에서 학교 측의 방해 없이 무사히 배포될 수 있을까?)

-필부-

또 하나의 마리오네트, 학부모

2013년 작년, 2기 학생참여단¹⁾이 '학생대표와 교육감과의 대화'라는 시간을 가진 적이 있었다. 교육감에게 주제별로 신청해서 질문을 던지는 순서가 지나고, 참관석으로부터 질문을 받아 교육감이 바로 대답하는 '플로어 토론(자유발언)'을 하고 있는 때였다. 두 참관인의 발언이 눈에 띄었다. 한 학부모는 '학부모 운영위원회' 활동을 통해 언론에서 본 학생들의 모습이 상당히 과장된 면이 있다고, 학생인원을 통해 교육적 희망을 찾을 수도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했다. 더불어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진행되는 교육청의 연수들이 학부모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는 문제를 지적했다. 한편 서울 중랑구 S고등학교 전교학생인 본은 학생대표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의 문제점을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 학생대표가 건의할 때는 들은 척도 안 하던 학교가 학부모운영위원의 말에는 바로 해결했던 사례를 이야기 했다.

이 말들에서 어떤 이는 학부모가 학생에 비해 많은 권한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어떤 이는 학부모에게 제공되는 편협한 정보나 학생, 학부모, 교사 사이의 부적절한 권력관계에 불만을 가질지도 모른다. 이처럼 사람들이 생각하는 학부모의 권한, 역할은 제각각이다. 그래서 같은 사안을 두고도 학부모를 모자라고 하거나 이런 데에 학부모님이 간섭하시면 곤란하다고 하는 등, 상황에 따라 학부모의 개입에 대한 입장이 다르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의 학교가 학부모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왜 학교는 학부모를 그렇게 보게 되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학부모운영위원회(이하 학원위), 각 학교의 대표 학부모들, 평학부모들의 조직 구성방식과 역할은?

학부모들의 조직으로는 평학부모, 학급을 대표하는 학부모, 그리고 학부모운영위원이 있다. 이런 기본 조직 외에는 '사파란' 같은 별도의 지역차원 조직이 있다. 평학부모는 학급을 다니는 자녀가 있는 모든 가정을 말한다. 학급을 대표하는 학부모는 학급 단위로 모인 평학부모들 사이에서 자원을 받거나 투표를 해서 결정한다. 또는 자녀가 학급반장인 경우 직책도 맡기도 한다. 학부모운영위원회의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나마 민주주의의 절차가 요구되기 때문에 한발 정도 인원을 정해서 입학후반 후보들을 평학부모들의 전체 투표로 선출하기도 하고, 학급대표들의 모임에서 자원을 받거나 투표로 선출하기도 한다. 전반적으로 학부모 조직 자체는 소통이 없는 경우가 부지기수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이든 민주주의라고 보기 어렵지만 이는 귀찮으니 생략한다.

학교운영위원회는 1995년 학부모를 포함한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이 학교의 운영과정을 보다 더 잘 알고,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식 참여 조직이다. 그러므로 학부모운영위원은 전반적인 학교 운영 상황에 대해 파악하고 의견을 내며 올바른 교육목표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실제로 학부모운영위원은 한 명의 학교운영위원으로서 도장을 찍거나 거주하는 역할 정도밖에 하지 않는다. 몇몇 학교 복지에 의지가 있는 분인 경우 목소리를 내거나 하지만 실득을 내세우기도 하고, 실득을 성공하더라도 학교의 '행성상의 문제'라는 변명에도 이상 이야기를 못 꺼내기도 한다. 자신의 자녀를 입시에 목을 매는 몇몇 학부모들은 본인의 뜻을 남용하여 학생인권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채, 수업시간을 늘린다거나, 보충 수업을 더 시키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내놓기도 한다.

학급을 대표하는 학부모들은 같은 학년 내에서 모여 친목을 다진다. 이때 학원위가 정발모 많은 학부모들을 대표하도록 학급대표들이 의견을 내는 경우는 거의 없는 듯하다.

학급 단위 내에서 학부모들은 간식을 때변 준비하고, 초등학교 저학년 학부모의 경우는 학급 청소를 떠맡기도 한다. 평학부모들은 자발적이든, 반강제적이든 모임 때마다 수급을 하고 간식준비를 한다. 심지어 참여하지 않는 학부모에게 은근 부담을 주기도 한다.

이렇게 학교에서 학부모들의 현실은 꽤나 우울하며, 학부모들이 제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학부모들만의 문제일까? 학교는 아무렇지도 않게 학부모를 행정적으로 소리한다. 학부모운영위원의 경우 제한적인 모습, 승인받지 않을 수 있을만한 정보들을 위주로 정보가 제공된다. 만약 이 이상의 정보가 제공되는 경우 그런 것들을 이해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물리적으로 부족하다. 게다가 직업에 상관없이 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의 참가를 별로 배려하지 않는다. 평학부모의 정예도 상황은 그다지 다르지 않다.

학교는 상담, 입시, 징계, 외출, 조퇴 등 학생이 본인에게 특유한 선택을 하려 할 때 항상 학부모에게 결정이나 허락을 구했다. 이렇게 특별히 행정상 필요에 따라 개인적으로 학부모는 자녀를 통해 학교와 관계를 맺는다. 그렇다 그런 방식의 관계는 학생에게는 굴욕적이고, 그렇다고 학부모에게 주제적이고, 상식적인 방식도 아니다.

학생, 학부모, 교사가 마주 없이 있는 상황을 가정해보자. 교사는 일단 학교

마리오네트, 학부모

에 소속되어 있고, 정보도 상당히 많고, 본인의 입맛에 맞는 정보를 골라서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제공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이 교사 개새끼..라는 식의 취지는 아니다. 그 이들도 어디까지나 행정상의 노예나 마한가지이다.)반면 학생의 경우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잘 모른다. 학교는 학생들이 할 일을 학생의 사와 상관없이 마음대로 정한다. 그래서 학생들은 작게는 아플 때 약하실에 간다던가, 화장실에 가는 것 등 사소한 것들도 어떻게 허락을 구해야 하고, 징계, 상담과 같이 조금 더 중요한 일에는 자기 의견을 내밀기도 힘들다. 오히려 학교는 학부모에게 학생의 일을 결정하라고 한다. 하지만 학부모도 정작 본인이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다. 그리고 학생과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잘 모른다. 그래서 학부모에 비해 교사의 목소리가 힘은 너무 세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는 교사들을 이용해서 각 학부모들 또한 그들의 자녀처럼 조련한다. 스스로의 것을 결정할 할 수 없는 학교,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학교, 통제재 대응보다 우선하는 학교에서 학생은 빛을 잃는다. 신분이 상승해야 겨우 학교에서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인간적인 대우를 받는다. 가장 기쁘게이어야 할 인원이 가장 일 힘들어진다.

학부모운영위원회가 학부모의 의견을 학교에 전달하기에는 학부모운영위원회의 권한이 너무 부족하다. 게다가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자기가 학부모운영위원이라는 자나도, 학부모운영위원으로서 열심히 활동하겠다는 의지도 없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금 살아오면서 학교운영위원회와 같은 민주적인 의결 기구의 운영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고, 그 기구에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도 전혀 배운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아이러니하게도 민주주의를 배우고 활용할 학교현장에서 민주주의가 빠진 결과인 것이다. 그러므로 학부모운영위원이 새롭게 뿔했을 때 학부모운영위원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임해야 하는지를 학교가 알려주게 된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게 학생들을 위한 겁니다.' 하면 '그렇군요'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학교운영위원회를 운영된 원래 목적인 빛이 바랜다. 학교의 독주를 감시하고, 학교의 민주주의를 두들겨 물어 여러 구성원들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학부모운영위원이 제 역할을 못하는 것이다. 학생을 학교라는 사회의 주인으로서 인권과 민주주의의 풍토에서 배우도록 하는커녕, 교장의 권력이 강화되고 학생들의 학교생활은 열악한 것이 당연시된다.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는 무엇일까?

학생에 대한 감시와 관리, 통제가 강해지고 공부에 대한 압박감이 커지면서, 학생들이 자신의 복지와 인권에 대해 이야기하기 힘들어지고 있다. 학부모의 상황도 이와 다르지 않다. 직장에서는 단지 부족속처럼 일해야만 하고, 사교육 시장은 나날이 커져서 온갖 압박과 유혹을 받고, 학교에서는 내 자녀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교육을 받는지 충분히 알려주지 않는다. 이런 상황을 타파하기 위한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각각의 여유를 찾는 것이다. 그러려면 연락수단을 늘리고 연락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여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나의 여가가 소중한 만큼의 여가가 소중중중, 지금의 학생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학교로부터의 시간, 학원으로부터의 시간, 그리고 고용되는 곳(말하, 현직실습생 등)으로부터의 시간, 정신적 여유 등. 하지만, 사람들은 학생들에게 쌓이는 부담을 걱정하면서도 '공부하는 것, 학교에 잘 다녀만'이라는 말을 하면서 그 부담을 지워버리고 있다. 하지만 학생들의 공부도 하나의 노동, '학습노동'이라고 이해한다면 학생들이 얼마나 여유 없이 달려야만 하는지 더 와닿을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의 여유를 위해서 지금 당장 학부모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운영위원들이 적어도 '학교로부터 지배당하는 시간', '학원으로부터 지배당하는 시간' 이라고 줄이고 줄여서 학생들에게 여유를 찾기 쉽도록 하는 것이 아닐까?

한 가지 실마리를 더 보태지면 다음과 같다.

우리 모두 학교가 어때야 하는지 생각해보아야 하지 않을까? 학교가 무엇을 위한 곳인지, 학교가 마지못해 살아가는 곳이 아닌 진정한 배움의 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학교를 제외한 국가 기관들이 제공하지 못하는 청소년 복지 등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어야 어떤 형태로든 학교, 사회적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그 고민 속에서 이끌어낸 상상이 이행되는 장소가 되려면 어떻게 변해야 할지, 학부모의 가장 가까운 사람과 함께 바꾸고하면 좋겠다. 바로 이 글을 통해 될 학원위이다. 평학부모는 학교, 그리고 학교의 모든 부모와 자녀들이, 학생인권조례,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학생의 권리에 대한 내용이 담긴 법률을 읽으면서 학교에 대한 상을 그려보고 지금의 학교는 어떤지 생각해보면 좋겠다.
-등이-

^[1] 학생인권조례, 서울학생인권조례 제 37조에 따라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 친화적 교육 문화 조성을 위한 것이다. 교육감의 정책 수립 과정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을 목적으로 서울학생 100명 이대로 구성된다. 2012, 2013년까지는 5월에 발족을 했으나 2014년부터는 새 학기 인권정책 시행등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을 위해 3월부터 발족을 한다.

-선우-

[영화에서 인권까지]

틀린 사랑 '여고 괴담 - 두 번째 이야기'를 보고



촌스러운 옛날 당한 효신과 달리 시은은 주위를 의식하고 효신을 피 공포영화에서 무 하기 시작한다. 학교라는 작은 공간 안에서 그 둘을 스 인권을 찾겠다 노려보는 수많은 눈이 시은을 괴롭게 한다. 숨지 않는 건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 영화는 두 여고생의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다. 물론 표면적 이고 영화 속에는 다른 의미가 숨어 있지만 한창 예민 할 시기의 청소년

년, 그것도 여고생의 동성애는 충분히 눈길 이 갈 만한 이야기이다.

좋아하는 남자 배우, 요즘 뜨는 남자 아이돌, 누구 남자친구, 재네 오빠... 여고생들의 이슈는 언제나 그렇듯 '남자'이다. 그냥 남자도 아닌 '잘생긴 남자.' 다른 애정거리도 많기가 하겠지만 '내 주변에는 없는' 잘생기고 맛있는 남자는 언제나 여고생들에게 있어 최고의 애정거리다. 그것은 당연하고, 언제나 옳다. '여자'가 '남자'에 관심이 있고, '남자'는 '여자'에 관심을 두는 것은 당연하고 옳다. 하지만 누구에게는 아니다. 동성애에 감정을 느끼는 사람들이 이성에 통 눈을 뜨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은 항상 '틀린 것' 이 된다. 이성에게 관심이 있는 대부분 사람에게 그것은 당연하지 않고, 틀렸다. 그래서 동성애자들은 숨어서 사랑한다.

극 중 효신(박예진)과 시은(이영진)이 그런 관계이다. 한창 감수성 풍부하고 뒷담 까기 좋아하는 여고생들 사이에서 위태롭게 연애를 이어간다. 시은은 자신이 떠날까 봐 항상 불안해하는 효신에게 '우리 공개 연애할까?'하고 물어본다. 시은이 효신을 달래기 위해 던진 말에 효신은 다음 날 교실 한가운데에서 키스로 답한다. 반 아이들이 수군거리는 가운데 시은은 정열 적으로 키스하는 효신을 밀어내 버린다. 그 이후, 담

느기는 인물은 없다. 사람이 죽었다. 하지만 아이들은 그녀를 추모하지 않는다. 결국, 기억 속에서조차 그녀는 '틀린'사람이 되어버렸다. 그녀를 이해해 주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영화 끝자락에 효신과 시은이 전교생의 축하를 받으며 기쁨을 축하하는 장면이 있다. 그것은 비록 시은의 짧은 상상에 불과하지만, 그 둘의 사랑이 얼마나 애뜻하고 절실했는지 강렬하게 느껴진다. 영화가 끝난 후에도 나는 이 장면이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았고, 그렇게 인상이 깊었던 이유는 사실 그게 당연 할지도 모를 일이어서였다.

이 글의 앞부분부터 말했지만, 대부분 사람은 동성애가 틀렸고, 당연히 비난할만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주 흔해빠진 표현을 기억해보라. '나와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틀린 사랑', '틀린 사랑'은 없다. '어려운 사랑'이러면 모를까 '틀린 사랑'이라는 것은 없는 단어이다.

이 영화를 본 사람이 남긴 영화 리뷰에 이런 말이 있었다. '예전에는 이게 공포영화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보니 슬픈 사랑이야기였다.' 이 말이 매우 공감했다.

시정를 높은 드라마만큼이나 슬픈 사랑이야기이다. 물론 작품이 1999년에 개봉한 것을 고려하면, 요즘 시대에는 동성애에 대한 시선이 부드러워졌을 수도 있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불치병에 걸렸나? 그것도 아니라면 둘은 사실 자매였나? 아무것도 아니다. 혼란 드러마나 영화에서 연인들이 헤어지는 이유 중에 둘은 아무것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저 둘 다 여자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그걸 인정조차 하지 않으며 듣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어 가슴 아픈 이별을 하고 난 후, 효신은 옥상에서 떨어진다. '너 없으면 나 죽어!'그러면서 울더니 진짜 죽어버렸다. 그러자 효신이 살아있을 때 딸들과도 괴롭히던 아이들은 괜히 찰서 시은에게 시비를 걸고 싸운다. '네가 그랬잖아!', '자기도 그랬으면서!' 식의 대화만이 오갈 뿐, 효신에게 미안함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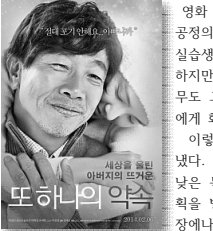
-아리-

청소년은 기계가 아니다! - 청소년 노동인권 이야기

지난 2011년, 기자차 광주공장에서 특성화고교 실습생 김 모 군이 쓰러지는 일이 일어났다. 그가 있던 공정은 성인 노동자들도 거리는 도장 공장. 독한 페인트 냄새, 그리고 이물도 알 수 없는 각종 화학약품 속에서 일하다 뇌출혈로 쓰러졌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를 향하던 언론의 관심도 어느 세인가 멀어졌다.

고교 출신 실습생의 열악한 실상

필자는 공업고등학교를 나왔다. 그 고 2수능시험이 끝나고 한국노총에서 노동법 강연을 있었다. 하지만 정작 고교생이 필요한 취업만 아이들은 모두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강연 내용도 '아르바이트'에 관한 내용뿐이었다. 고교 실습생 대부분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 무리한 잔업과 특근, 위험한 공종으로의 배치, 관리자의 욕설 등 상식적인 인권침해에 시달리고 있다. 필자의 고교 동료도 실습을 나갔다가 관리자의 성희롱 때문에 회사를 나온 적이 있다. 하지만 학생들을 취업시켜 실적을 올려야 하는 학교는 이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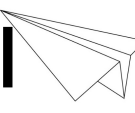


영화 '또 하나의 약속'에 나오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정의 백혈병 피해자들도 대부분 실습제 고교 출신 실습생으로 공장생활을 시작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들이 백혈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을 때 아무도 그들에게 법을 알려주지 않았다. 아무도 그들에게 회사와 싸울 방법을 알려주지 않았다. 이렇게 현실과 떨어진 학교 교육은 많은 희생자를 냈다. 설상가상으로 2012년 교육부는 취업 실적이 낮은 특성화고교는 일반고로 전환해 버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때문에 고등학교들은 아무런 공장에나 무리하게 학생들을 보낼 것이고 고교 실습생

-다민-

세상을 향하여 인권을 날리다!

종이비행기



- by 다민, 미류, 선우, 아리, 일다희, 제뉴어리, 펄부

*이전호의 내용은 화야 카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은 기계가 아니다!
바스에 카드를 대면 '학생입니다' 소리가 나오던 적이 있었다. 이렇게 사회는 '청소년 = 학생 = 공부'라고만 생각한다. 그래서 노동하는 청소년들은 '비정성'이라는 편견 아래 고통 받고 있다. >>>p.4로



명문 비교등학교의 야매 교육
모든 학교는 명문이 되기를 꿈꾼다. 노원구의 비교등학교 역시 마찬가지다. 하지만, 학교가 꿈꾸는 명문이 어떤 명문일지는, 두고 봐야 알 일이다. >>>p.2로



틀린 사랑
사회에선 온갖 것에 점수를 매겨 줄 세운다. 그 와중에, 청소년들은 사랑마저 채점당하고 있다. 하지만 어떤 사랑이 '맞은' 것이며, 어떤 사랑이 '틀린' 것인가? 사회가 사랑마저 채점할 자격이 있을까? >>>p.4로



졌고, 뜯고, 버리고, (별칭)매리코
"안녕들 하십니까?" 몇 년 전만 해도 단순한 인사에 불과하던 말이, 몇 달 사이에 전혀 새로운 뜻을 가지게 되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질문에 고민하고 대답했다. 하지만 학교는 학생들의 대답을 허락하지 않았다. >>>p.2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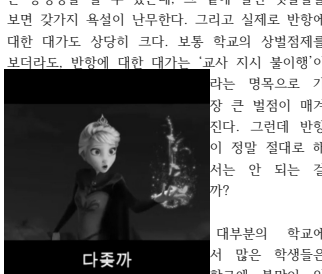
[펄부의 인권 어그로]

만국의 학생들이여, 반항하라!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글에 동의하지 못할 것이고, 심지어 당황하고 분노하며 배정 주고, 마음에 안 든다고 때리고, 점수 잘 안 나온다고 막말하고, 의심된다고 무작정 주머니 뒤지고, 확장실현 유지도 제대로 없고, 반 등수 전체 등수에 점수까지 있기 때문이다. 게임에서는 이런 걸 보통 '어그로'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 글의 제목은 '인권 어그로'가 되었다. 이 글로 많은 사람들이 청소년 인권을 향해 어그로를 풀 수 있기를 바란다.

다. 대문 앞에서 머리 검사하고, 추위 죽겠는데 코르도 제대로 못 입게 하고, 인사 안한다고 벌점 주고, 마음에 안 든다고 때리고, 점수 잘 안 나온다고 막말하고, 의심된다고 무작정 주머니 뒤지고, 확장실현 유지도 제대로 없고, 반 등수 전체 등수에 점수까지 있기 때문이다. 게임에서는 이런 걸 보통 '어그로'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 글의 제목은 '인권 어그로'가 되었다. 이 글로 많은 사람들이 청소년 인권을 향해 어그로를 풀 수 있기를 바란다.

"반항"이라는 말에 대한 거부감은 굉장하리 크다. 인터넷을 뒤적거리다 보면 가끔가다 학생이 교사를 때리는 동영상을 볼 수 있는데, 그 밑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 갖가지 욕설이 난무한다. 그리고 실제로 반항에 대한 대가도 상당히 크다. 보통 학교의 삼벌제제를 보더라도, 반항에 대한 대가는 '교사 지시 불이행'이라는 명목으로 가장 큰 벌점이 매겨진다. 그런데 반항이 정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걸까?



다뜻까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남의 말 잘 듣는다고 자다가 딱 같은 거 안 나온다.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청소년한테는 투표권도 돈도 영향력도 없으니, 겉치레 이상의 고려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믿기 힘들다면,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만들어진 섯다운제, 아침형, 청소년보호법, 등급심의회 등의 각종 규제들을 보자. 이런 규제들이 만들어질 때, 어떤 거 필요 없는 청소년과 규제를 하고 싶은 성인 중 누구의 입장이 더 많이 반영되었을까? 흔히 공짜는 없다고들 한다. 내리사랑 같은 미사여구를 버리고 냉정하게 살펴보면, 아무런 기대도 요구도 만족도 없이 청소년을 마냥 착하게만 대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청소년 인권동아리 화야' 부원을 모집합니다!

학생생활 보단 입시실적이 먼저인 학교에 치졌다면? 교내 불만사항을 뒷담만 하는 것이 할리다면? 청소년 때만 주인의식을 요구하는 학교가 짜증난다면? 진지하게 토론하고 시원하게 폭로하고 화끈하게 대안을 마련해보자! 화야에서!
대상: 노원구에 사는, 학생, 청소년 인권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환영해요~

그러니 만국의 학생들이여, 반항하라!
(덧붙여서 -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반항하면서 '이건 내 권리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교사가 학생을 때릴 권리가 없듯이 학생이 반항하면서 교사를 때릴 권리는 없다. 이처럼 반항은 상당히 강력한 만큼 상대방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역시 크다. 그래서 반항이 또 다른 인권침해가 되지 않도록 '어떻게 반항해야 할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화야에서 이와 관련된 고민을 나눌 수 있다고 하는데...!)

연락처 : 대표 whaya 010-4083-4987
카페 주소 : http://cafe.naver.com/hwaya
+욱을한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제보도 받고 있습니다! 연락주세요!

